14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인근 도로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여성 운전자가 경찰승합차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스마트폰, 음주단속 훼방꾼?

경찰 단속정보 앱으로 알려줘 운전자들 피해가기 일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때문에 대상지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주단속 교통정보'라고 불리는 이 앱은 실시간으로 과거 단속 이력이 있었던 곳을 표시해줘 음주운전자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스토어에서 99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앱은 GPS 기능을 이용해 현재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6㎞ 이내에서 과거 한차례라도 단속했던 장소를 표시해주고 있다. 또 각 구별로도 단속 지역을 알려줘 음주운전자들이 예상 단속 지역을 확인한 뒤 동선을 만들 수도 있다.

네티즌들은 "도움이 많이 되네요" "잘 쓰고 있어요" "하는 곳은 늘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차량 통행이 많고 음주운전자들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10여 곳의 지역을 선정해두고 단속을 해왔는데,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등장하면서 매번 장소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상가 밀집 지역과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민불편과 직원들의 사고 위험이 있어 단속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경찰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앱이 제공하는 단속정보와 큰 도로, 상가 밀집 지역을 피해 주택가 주변 도로를 단속 장소로 정하다 보니 "코앞에 있는 집을 가는데 그걸 단속하느냐"며 따지는 시민들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밤 9시53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운전자 이모(49)씨는 "집이 코앞이니 운전해서 집에 가야겠다"며 20여 분간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최모(여·28)씨도 "불과 1㎞도 안 되는 집에 가는데,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냐"며 경찰과 1시간 가량 논쟁을 계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로 들어와 단속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민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음주단속 앱 때문에 업무에 방해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내년 '쉬는날' 116일

명절연휴 주말과 겹쳐…총선·대선 있어 다행

임진년(壬辰年)인 2012년 쉬는 날은 주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116일이다.

15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비교하면 똑같고 2008년 115일, 2009년 110일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으레 눈에 들어올 법한 토·일요일과 이어지는 공휴일이 내년에는 석가탄신일(5월28일·월요일) 한번밖에 없다. 징검다리 연휴도 3·1절(3월1일·목요일), 성탄절(12월25일·화요일) 등 2차례뿐이다.

이처럼 연휴가 적은 것은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등이 수요일에 몰렸기 때문이다.

귀성·귀경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명절은 더 빡빡하다. 설날 연휴(1월22~24일)는 일~화요일이어서 앞에 토요일을 붙여도 나흘밖에 안 되며, 추석 연휴(9월29일~10월1일)는 토~월요일 사흘이 전부다. 다만 2012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4월11일)와 대통령 선거(12월19일)가 있어 출근일이 이틀 줄었다. /연합뉴스

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장애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0대 사건은 지난 10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시정 사건 가운데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건들이 뽑혔다.

10대 사건에는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非)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등이 포함됐다.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는 인권위의 첫 진정이면서 차별사건의 36%를 차지하는 장애차별이라는 사유로, 크레파스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차별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각각 선정됐다.

비(非)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는 우리 사회에 학생증 외 청소년증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최대 단일 고용주인 정부에 대한 권고이자 나이에 대한 차별을 개선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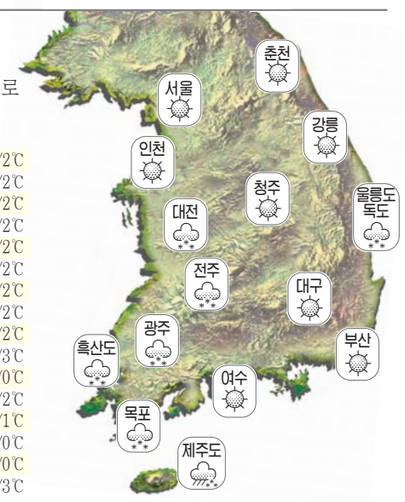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4분 해짐 17시 22분 달뜸 23시 03분 달짐 11시 12분

눈과 함께 강추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1~8m의 눈이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눈	-2/2℃
목 포	흐리고눈	-1/2℃
여 수	구름조금	-2/2℃
나 주	흐리고눈	-5/2℃
완 도	흐림	-1/2℃
구 례	흐리고눈	-4/2℃
강 진	흐림	-2/2℃
해 남	흐리고눈	-2/2℃
장 흥	흐림	-3/2℃
순 천	구름많음	-2/3℃
영 광	흐리고눈	-4/0℃
진 도	흐리고눈	-1/2℃
전 주	흐리고눈	-4/1℃
군 산	흐리고눈	-3/0℃
남 원	흐리고눈	-5/0℃
흑산도	흐리고눈	1/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5:30 18:03	10:46 23:28
여수	00:13 12:48	06:17 18:5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 씨						
최저/최고	-4/3	-1/6	-1/7	0/7	-1/7	0/5

주말 눈세상

전남 서해안 최고 8㎝

주말 광주·전남 지역에는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16일 전남 서해안 지역은 2~8㎝, 광주 및 전남 내륙지역은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장성이 영하 5도, 광양·구례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이 0~3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17일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18일부터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